

# 日帝下 韓國人 酒造業의 發展

朱 益 鍾\*

## < 目 次 >

- I. 머리말
- II. 酒稅令 施行 以前의 酒造業
- III. 酒稅令 施行~1920年代末의 酒造業
- IV. 戰時統制 以前 1930年代의 酒造業
- V. 맺음말

## I. 머 리 말

일제하에서 주류제조업은 중요한 공업의 하나였다. 『朝鮮總督府統計年報』에 의하면 1930년에 酒類 생산액은 全工産額의 15%에 해당하였고, 그후 비중이 점차 줄어들긴 했으나 1939년에도 9.2%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酒造業은 총독부의 중요한 租稅源의 하나로서, 언제나 당국의 주요 관심의 대상이었다. 酒稅는 1909년에 全租稅收入 중 1.3%를 차지하는 데 불과하였으나, 1934년에는 29.5%를 차지하여 地稅를 제치고 마침내 제1위의 조세항목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酒造業은 “이제 조선에서의 제조공업의 首位를 점할 뿐 아니라 국가재정의 기본인 조세의 大宗으로서… 명실공히 半島産業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까지 평가되었다.<sup>1)</sup>

더욱이 주조업은 한국인 자산가가 진출한 몇 안되는 加工工業의 하나였다. 주조업은 1930년대 중엽경 한국인 공장에 있어서 정미업, 정어리기름가공업에 이어 세번째로 공장수가 많은 업종이었으며, 또 1920년대 후반과 30년대 중 후반에 한국인 회사자본의 증가속도가 광업 다음으로 빨랐던 업종이었다.<sup>2)</sup>

\*서울大學校 大學院

1) 『朝鮮酒造史』, 朝鮮酒造協會, 1935, pp. 10~11.

2) 拙稿, “日帝下 朝鮮人 會社資本의 動向,” 『經濟史學』 15, 1991, 제III절을 참고.

이처럼 일제하에서 酒造業은 전체 공업 중에서도, 한국인 자산가의 경제활동에 있어서나 중요한 부분의 하나였다. 따라서 일제하의 酒造業의 전개를 구명하는 것은 당시의 중요한 공업의 하나를 밝힌다는 의의뿐 아니라, 한국인 자산가의 주요한 활동형태, 존재형태의 하나를 밝힌다는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그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酒造業은 지금까지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으며, 간혹 부수적으로 언급되는 경우에도 한국인 資産家의 주조업 종사는 그 경제활동의 후진적인 모습, 전경제기구 속에서의 그의 주변적地位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평가되었다. 즉 주조업으로부터 한국인 자산가의 ‘退嬰의 모습’만을 부각시켰던 것이다. 물론 주조업은 방직공업 등에 비해 ‘주변적’인 공업이고 또 발전가능성이 작다. 그러나 그러한 주조업 자체도 일제하에서 뚜렷한 발전을 이룩했으며 거기서 한국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주조업에서 다른 측면을 새로 발견할 수 있다. 즉 주조업에서 한국인 자산가의 성장을, 植民地 資本主義 發展에 대한 한국인의 대응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조업이라는 일제하 한국인 자산가의 주요한 활동형태의 하나로부터 그의 성장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주목되는 것이 최근의 堀和生 교수의 연구<sup>3)</sup>다. 그는 1930년대 공업화 전반을 다루면서, 中日戰爭 이전까지 식민지 한국 내부의 계기에 의해 사회적 분업의 재편과 시장확대가 진행되었고, 특히 주조업에서는 總督府 당국의 정책적 개입(주조장의 合同·集約, 酒類 自家製造의 금지 등)을 매개로 하여 酒造場의 확대·工場化, 한국인 경영의 발전이 일어났음을 주장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일제하 주조업이 어떻게 전개되어 갔는지가 대략적으로 밝혀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연구는 주조업 자체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아서 매우 개략적인 서술에 그치고 있으며 또 주조업을 보는 그의 시각도 朝鮮內的 契機에 의한 공업화를 검출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연구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주조업에 관하여 그의 연구에서 소략히 다루어진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식민지 자본주의 발전에 대한 한국인의 대응, 그 결과로서의 한국인의 성장을 검출한다는 시각에서 주조업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바로 이런 필요에서 진행되었다.

3) “1930년대 조선공업화의 재생산조건,” 『근대조선의 경제구조』, 비봉출판사, 1989

이제 이 연구의 대상으로서 한국인 酒造業의 범위를 정해둘 필요가 있다. 植民地期 한국의 주요한 酒類는 淸酒, 麥酒, 燒酎, 濁酒, 藥酒 등이었다. 이 중 거의 전적으로 일본인에 의해 생산되고 소비되던 淸酒와 麥酒를 제외한다면, 濁酒와 藥酒, 燒酎가 본 논문의 고찰대상이 된다.<sup>4)</sup> 이 세 酒類는 전체 주류생산액에서 1930년대 초 약 90%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후 비중이 약간 작아져 39년경에는 약 80%의 비중을 차지하였다.<sup>5)</sup> 이처럼 그 비중이 컸다는 점에서, 이 세 酒類의 제조에 관해 고찰하는 것은 곧 전체 주조업을 고찰하는 것이 된다고 하겠다.

이하에서는 『朝鮮總督府統計年報』의 “工産額통계” 및 “財政통계”, 朝鮮酒造協會가 1935년에 발간한 『朝鮮酒造史』, 朝鮮酒造協會의 발간 잡지(『朝鮮酒造協會雜誌』→『酒』→『酒之朝鮮』), 그리고 『朝鮮酒造業40年の歩み』 등의 자료를 주로 이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주조업의 전개과정을 ① 1910~16년, ② 1916~29년, ③ 1930년대라는 세 시기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이 중 1930년대에 관해서는 자료관계상 酒造業에 戰時統制가 가해지는 시점(1938년 6월의 酒造組合令 제정)까지를 중점적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 II. 酒稅令 施行(1916年) 以前の 酒造業

### 1. 酒稅法의 施行

1909년 2월에 酒造業에 관한 최초의 법률로서 酒稅法이 공포되어 1916년 酒稅令의 제정 때까지 시행되었다. 이것은 주류를 釀成酒, 蒸溜酒, 混成酒의 3種으로 구분하고(제 2 조),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장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제 3 조), 주류제조자는 매년 11월말에 다음해 제조할 주류 및 造石數를 관할 재무서에 신고할 것을 규정하며(제 5 조), 주류 종별마다 造石數를 몇 계급으로 나누어 과세하였다(제 6 조).<sup>6)</sup> 그렇지만 제조장 수가 매우 많아서, 주류造石數를 정확하게 조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주세 징수액도 소액에 머물렀다.

4) 燒酎에는 재래소주(조선소주)와 신식소주(酒精式燒酎)가 있어서, 그중 재래소주는 주로 한국인에 의해 제조되었던 반면에 신식소주는 주로 일본인의 대공장에서 생산되었다. 본논문에서는 酒精式 소주도 연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5) 『朝鮮總督府統計年報』각년판의 공산액통계를 참고.

6) 『朝鮮酒造史』, pp. 179~181.

## 2. 酒類 生産의 實態

〈表 1〉에서 주류별로 1913~6년 기간 중의 생산량을 보자.<sup>7)</sup> 우선 주류별 造石數는 탁주 100만石 이상, 약주 3만石 정도, 소주 10만石 정도에 달하였다. 생산가액 상으로 보면, 1915년경 탁주가 68%, 소주가 25%, 약주가 7%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 제조장 당 생산량이 매우 작은 반면 제조장 수가 대단히 많았다(〈表 2〉). 1913년 당시의 제조장 당 연간 造石數는 탁주 3.7石, 약주 4.2石, 소주 1.8石이었으며, 반면 제조장 수는 40만호에 가까웠다. 당시의 주류가격이 탁주 1斗 1圓 내외, 약주 1斗 2圓 내외, 소주는 酒精度數 30度の 것 1斗 7,8圓 정도였음<sup>8)</sup>을 감안하면, 탁주제조장은 연간 37圓, 약주제조장은 84圓, 소주제조장은 120~140圓 정도를 제조한 셈이 된다. 酒類別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주조장이란 대단히 영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주조장이란 어떠한 것이었는가? 다음의 기술을 보자.

“韓國時代의 酒造는 실로 미미한 것으로, 酒造를 生業으로 하기보다도 副業으로서 경영하는 것이 많고 또 自家用으로서 일반가정에서 만들어진 것도 적지 않았다. 또 조선의 풍습으로서 극단적인 官尊民卑로 工業勞作에 종사하는 것을 賤하다 하여 酒造와 같은 것도 賤業으로서, 혹은 부녀자가 하는 業으로서 경멸되었다… 제조장도 常住의 온돌 혹은 가옥의 한칸을 사용하는 것이 많고 제조장으로서의 설비를 갖춘 것은 몇 개에 지나지 않았다… 당시의 濁酒의 製法은 극히 간단하여 막누룩(粗麴)과 蒸米와 물을 혼합하여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만드다고 하기보다도 생겨난다고 하는 쪽이 적절하고…”<sup>9)</sup>

“貢酒家は 주로 약주를 제조하는 것으로 도매를 주로 한다… 제조장의 규모는 비교적 커서, 적어도 6,7칸을 갖고… 용량 2石인 큰 독 5,60개를 갖춘 것도 적지 않다…

拓酒家は 탁주 제조를 주로 하는 것으로 지방 주조가는 대개 이에 속하고… 겸하여 약주, 소주를 제조하고 일반적으로 그 점포에서 음식물을 조리하여 음식을 제공한다. 즉 제조가로서 음식점을 겸한다… 보통 큰 독이나 작은 독 몇 개를 갖추고 있는 데 불과하다…

燒酎家は 소주제조 판매를 주로 하는 것으로 京城 이남의 것은 탁주가를 겸하는 것이 많지만 京城 및 그 이북에서는 일반적으로 專業으로서 그 제조량도, 제

7) 『朝鮮總督府統計年報』에는 주류별 제조장 수와 생산량 통계가 1913년도분부터 나타난다. 그렇지만 제조장 수가 매우 많고 이름뿐인 소규모의 것도 많았기 때문에, 주류생산량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8) 山口精 編, 『朝鮮産業誌』中, 1910, p.472.

9) 위의 책, pp.11~12.

〈表 1〉 酒類生産量の 推移

(單位: 石, %)

	濁 酒	藥 酒	燒 酎
1913*	1081443	26654	84740
1914*	1186339	32356	101370
1915*	1210921	29256	89758
1916*	1279083	30630	104586
1916	486315	28826	90410
1917	562198( 15.6)	32018( 11.1)	118987( 31.6)
1918	700133( 24.5)	37244( 16.3)	140906( 18.4)
1919	846689( 20.9)	36043( -3.2)	117564(-16.6)
1920	1107409( 30.8)	37283( 3.4)	119844( 1.9)
1921	1207337( 9.0)	39566( 6.1)	186608( 55.7)
1922	1095215( -9.3)	38845( -1.8)	167542(-10.2)
1923	1247575( 13.9)	54020( 39.1)	181857( 8.5)
1924	1246508( -0.1)	59749( 10.6)	192753( 6.0)
1925	1305262( 4.7)	70918( 18.7)	228040( 18.3)
1926	1329451( 1.9)	76648( 8.1)	266238( 16.8)
1927	1323710( -0.4)	83740( 9.3)	274918( 3.3)
1928	1340573( 1.3)	94637( 13.0)	294155( 7.0)
1929	1287019( -4.0)	93275( -1.4)	322289( 9.6)
1930	1164088( -9.6)	89033( -4.5)	265374(-17.7)
1931	1192007( 2.4)	94826( 6.5)	253923( -4.3)
1932	1286407( 7.9)	96380( 1.6)	312235( 23.0)
1933	1554619( 20.8)	119350( 23.8)	381817( 22.3)
1934	1683526( 8.3)	128070( 7.3)	446866( 17.0)
1935	1814583( 7.8)	132156( 3.2)	502279( 12.4)
1936	1906586( 5.1)	127082( -3.8)	587016( 16.9)
1937	2056734( 7.9)	139536( 9.8)	659775( 12.4)
1938	2434800( 18.4)	160574( 15.1)	665927( 0.9)
1939	1907800(-21.6)	129573(-19.3)	933546( 40.2)
1940	2302726( 20.7)	131704( 1.6)	549886(-41.1)
1941	2320213( 0.8)	129012( -2.0)	281095(-48.9)
1942	1232065(-46.9)	107917(-16.4)	120514(-57.1)

資料: 『朝鮮總督府統計年報』各年刊, “財政篇”. 1939~42년의 통계는 『朝鮮酒造業40年の歩み』, p.99.

- 註: 1) \* 표시한 연도(1913~6년)의 수치는 당해년도(1월~12월)의 제조량으로서 당국에 신고된 것임. 이것은 自家用酒의 제조석수를 포함함.  
 2) 그밖의 연도(1916~42년)의 수치는 1 酒造年度(그해 9월~다음해 8월)의 제조량임. 이것은 自家酒의 제조석수를 포함하지 않음.  
 3) \* 표시한 연도의 燒酎 항목의 수치는 燒酎를 포함한 蒸溜酒 전체의 造石數임.  
 4) (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表 2〉 酒類製造場 數의 推移

	酒 類 全 體	濁 酒	藥 酒	燒 酎		年間 增加率(%)				
				朝鮮	新式	全 體	朝鮮酒	濁 酒	藥 酒	朝鮮燒酎
1913*		292893	6300	46390						
1914*		311418	5697	49181						
1915*		333731	5522	45047						
1916*		369099	6779	49799						
1916	122180	90097	3322	28404	51					
1917	111717	83273	2661	25422	52	-8.6	-8.6	-7.6	-19.9	-10.5
1918	90951	69128	2521	19001	55	-18.6	-18.6	-17.0	-5.3	-25.3
1919	74811	63980	2086	8467	28	-17.7	-17.8	-7.4	-17.3	-55.4
1920	61610	55313	972	5056	36	-17.6	-17.7	-13.5	-53.4	-40.3
1921	57202	50846	916	5172	29	-7.2	-7.2	-8.1	-5.8	2.3
1922	49913	44602	765	4320	48	-12.7	-12.7	-12.3	-16.5	-16.5
1923	52390	47684	713	3741	35	5.0	4.9	6.9	-6.8	-13.4
1924	48654	44549	706	3175	28	-7.1	-7.1	-6.6	-1.0	-15.1
1925	45889	42774	612	2296	25	-5.7	-5.7	-4.0	-13.3	-27.7
1926	38432	36466	469	1303	20	-16.3	-16.3	-14.7	-23.4	-43.2
1927	28491	27253	257	800	20	-25.9	-26.0	-25.3	-45.2	-38.6
1928	15424	14441	174	630	20	-45.9	-46.1	-47.0	-32.3	-21.3
1929	5674	4786	162	545	20	-63.2	-64.0	-66.9	-6.9	-13.5
1930	4946	4149	130	491	18	-12.8	-13.2	-13.3	-19.8	-9.9
1931	4670	3900	118	478	22	-5.6	-5.7	-6.0	-9.2	-2.6
1932	4421	3687	108	457	19	-5.3	-5.4	-5.5	-8.5	-4.4
1933	4696	3579	103	430	9	6.2	-3.0	-2.9	-4.6	-5.9
1934	4221	3517	96	464		-10.1		-1.7	-6.8	
1935	4053					-4.0				
1936	3729					-8.0				
1937	3612					-3.1				
1938	3191					-11.7				

資料：『朝鮮總督府統計年報』.

註：1) 연도중 \*표시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구별은 〈表 1〉과 같음.

2) 두 종류 이상의 주류를 제조하는 양조장의 경우 비중이 가장 큰 주류 쪽으로 귀속시켰음.

3) \*표시 연도의 소주 항목의 수치는 소주를 포함한 증류주 전체의 數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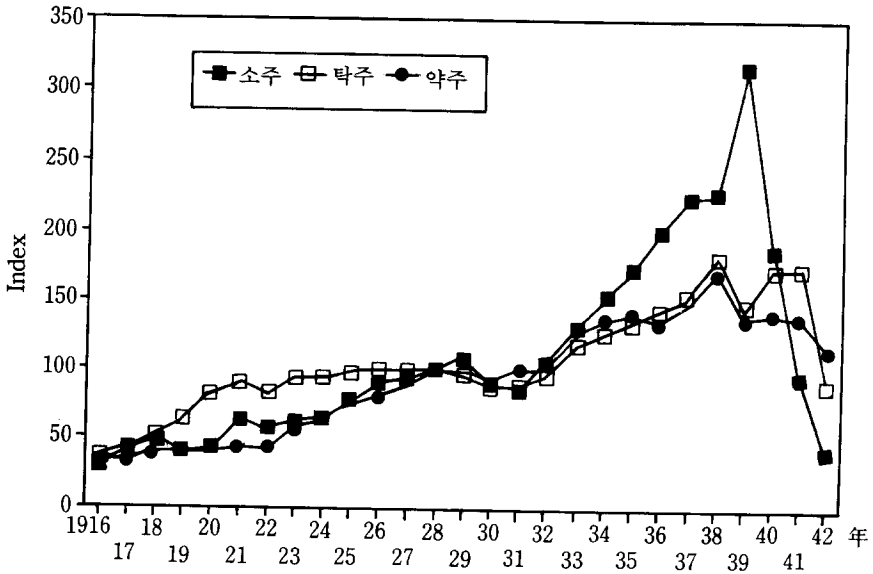
조장 규모도 상당히 커서… 큰 항아리 70, 80개 내지 100개를 갖춘 것도 적지 않다.”<sup>10)</sup>

“탁주는 음식점에서 自家製造하여 한 잔씩 판매하거나 각 가정에서 自家製造하여 판매거래가 적고… 약주와 소주는 주조장에서 제조한 후 음식점에 판매한다.”<sup>11)</sup>

10) 『朝鮮産業誌』中, pp. 464~65.

11) 『朝鮮酒造史』, p. 47.

〈그림 1〉 주류 생산량의 추이



註: 1928년의 생산량을 100으로 한 指數임.

결국 이상의 記述로부터 전체 주조장의 개략적인 像을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다. 즉 당시의 주류 제조법은 ‘放任的 제조법’이라고 불릴 만하였고, 주조장 중 압도적 다수를 점한 탁주 주조장은 규모가 작은 음식점점 주조장이었으며, 약주와 소주 주조장은 그에 비해 규모가 컸고 대개 專業的 酒造場이었다.

### III. 酒稅令 施行~1920年代 末의 酒造業

#### 1. 日帝의 酒造業 政策

##### 1) 酒稅令의 施行

일제는 1916년 7월에 酒稅令을, 8월에 酒稅令 施行規則을 발표하고 이를 9월부터 시행하였다. 이것은 병합 후 재정기반을 구축하는 작업의 일환이었다고 보인다.

酒稅令의 주내용은 주조업에 대한 총독부의 과약을 강화하고 稅率을 높이는 것이었다. 즉 i) 종래의 釀造酒, 蒸溜酒, 再製酒라는 大分類에서 나아가 그 제

조법, 純酒精의 함유량 등에 따라 각 주류를 더욱 細別하고, ii) 재래의 방법에 의해 제조하는 朝鮮酒와 그밖의 주류(非朝鮮酒)를 구별하고, 朝鮮酒에 대해서는 제조자의 신고에 따라 造石數를 사정하고, 조선주 이외에 대해서는 그 造石數를 실측사정하며, iii) 종래 造石數를 몇 계급으로 구분하여 각 계급마다 일정 酒稅額을 부과했었지만, 이제 1石당 세율을 정하고 그에 造石數를 곱하여 과세액을 산출하여 전체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며, iv) 販賣用酒 제조업자의 造石數에 최소한도를 두어 소규모 제조자의 濫興을 막고, 朝鮮酒 이외의 주류에 대해서는 自家用酒의 제조를 금지하나, 조선주에 대해서는 石數에 제한을 두어 자가용주의 제조를 허가하였다.<sup>12)</sup>

酒稅令의 시행과 더불어 주세액이 크게 늘어났다. 輸入酒稅를 제외한 주세액은 酒稅法 시행 하의 1916년도에 521,345원이었으나 酒稅令 시행 첫 해인 1916酒造年度에 1,127,945원으로 배 이상 늘어났다. 이 酒稅의 인상분만큼 주류가격도 인상되었다.

그후 日帝는 수차에 걸쳐 酒稅令을 개정하였다.<sup>13)</sup> 그 일관된 방향은 주조장의 최저제한 石數를 늘리고 稅率을 높이는 것이었다.<sup>14)</sup>

## 2) 酒造場의 集約化政策

酒稅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율을 인상함과 더불어 주조장에 대한 총독 부당국의 파악력을 강화하고 주조장의 경영을 보다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에 총독부 당국은 군소주조장을 정리하여 그 수를 줄이는 한편 주조장의 규모를 확대하고 시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주조장의 개편을 당시 ‘集約化’라 불렀는데, 이 集約化정책은 1920년 전후부터 실행되었다.<sup>15)</sup> 총독부는 여기서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여, 한 지역 내의 군소주조업자들로 하여금 조합을 조직하고 하나의 주조장을 설립케 하거나<sup>16)</sup>, 酒稅令에

12) 위의 책, p.183 및 『朝鮮酒造業40年の歩み』, p. 33.

13) 이에 관해서는 위의 책, pp.186~94, 참고.

14) 예컨대, 최저제한 石數는 1916년에는 탁·약주 5石, 조선소주 2石으로 정해졌으나, 1919년에는 각기 10石, 5石으로 높아졌고, 1927년에는 모두 20石으로 높아졌다.

15) “이 군소 製造場을 합동 집약하여 비교적 製造場의 설비를 갖추고 資力과 敎養있는 인물이 酒造經營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취지로부터, 1919·20년경부터 점차 각지 製造場의 통폐합을 행하기에 이르렀다.”(『朝鮮酒造業40年の歩み』, p. 33)

16) 예컨대, “함남 같은 곳은 1923년 大集約 단행 이래 처음에는 거의 전부 組合이었”고, “함흥읍 내 十數개의 주조장의 査定石數 합계가 2천이었으므로 이를 1곳으로 하고 2천石의 면허를 주었다.” 각기 “朝鮮酒製造經營方法に就て,” 『朝鮮酒造協會雜誌』 2-1, 1930, p. 34 및 “西鮮地方燒酎業視察所感,” 『朝鮮酒造協會雜誌』 2-3, 1930, p. 7.

규정된 주조장의 최저제한 石數를 引上해 감으로써 그 이하 규모의 군소주조으로써 그 이하 규모의 군소주조장을 정리하였으며<sup>17)</sup>, 음식점과 주조장을 겸한 경우 어느 한쪽만을 택하도록 강제하였다.<sup>18)</sup> 아울러 신규주조면허가 억제되었음은 물론이다. 특히 황해, 평남북, 함남북의 소주지방 5道에서는 1924년부터 燒酎業整備3年計劃이 실시되어 지역 내에서 군소주조장을 정리함과 아울러 濁酒業을 폐지하고 燒酎專業化하였다.<sup>19)</sup>

그런데 ‘각지 모두 面소재지, 또는 그에 準하는 장소가 아니면 양조를 허가하지 않는 방침’을 채택했다는 것<sup>20)</sup>이나, “함남의 주조장은 1집단지에 1개소의 주조장을 두었다”는 것<sup>21)</sup>, 그리고 1930년 현재 1面당 주조장 수가 중부이남(탁주지방)은 1~3개, 북부(소주지방)는 0.5개 정도로 나타나는 것<sup>22)</sup>을 보아, 집약화시에는 대체로 1面 1酒造場의 원칙이 적용되었다고 보인다.

### 3) 酒造場에 對한 檢査 監督의 強化

앞서 본 것처럼 酒稅令 시행시 조선주 이외에 대하여는 그 조석수를 實測査定하고, 조선주에 대하여는 여전히 신고에 따라 造石數를 査定하였다. 조선주의 경우 제조방법이 간단하고 단기간에 제조가 이루어지므로, 주세징수를 위해서는 검사와 단속의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조선주 제조장에 대한 검사 감독의 조치들이 시행되었다.<sup>23)</sup> 예컨대 제조량을 정확히 조사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sup>24)</sup> 그리고 밀주주의 단속도 철저히 수행하여, 그 검거건수는 1920년대 말에 연간 약 1만 5천건에 달하였다. 또한 위생상의 단속도 하여, 예컨대 조선소주 제조시 銅製 증류기(銅고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주에

17) “釜山朝鮮酒製造場と整理,” 『朝鮮釀造協會雜誌』 2-6, 1927, p. 62를 참고.

18) “釜山府 當國에서는 府內 조선인 음식점兼주조업자에 대하여 4월 이래 점업을 폐지하고 어느쪽인가로 독립하도록 종용하고 있고…180명의 점업자는 大恐慌을 맞이하여…” “飲食店と酒造業の兼業廢止の實施,” 『朝鮮釀造協會雜誌』 2-7, 1927, p. 46.

19) 『朝鮮酒造史』, p. 169.

20) “朝鮮に於ける燒酎釀造家のために,” 『朝鮮釀造協會雜誌』 1-8, 1926. 10, p. 4.

21) “西鮮地方燒酎業視察所感,” 『朝鮮酒造協會雜誌』 2-3, 1930, p. 10.

22) 1面당 주조장 수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황해	평남	평북	강원	함남	함북
1.2	1.6	1.7	1.7	2.3	2.1	2.8	0.8	0.4	0.4	3.6	0.4	0.6

(『朝鮮酒造協會雜誌』 3-1, 1931, p. 69)

23) 이에 관해서는 위의 책, pp. 214~215을 참고.

24) 酒母제조回數 ‘星取表’에 제조용기별 제조량을 기입케 하여, 臨檢時 이 표와 해당 제조용기를 대조 조사하여 정확한 제조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銅 성분이 남아 있었는데, 1924년부터 개량증류기로의 대체를 장려하였다. 또한 酒造方法을 개선하고 나아가서는 생산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졌다.<sup>25)</sup> 예컨대 酒稅令 시행과 함께 총독부 본부와 7개 도에 酒造技術官을 배치하였고, 1929년 9월에는 酒造團體로서 朝鮮酒造協會를 결성케 하였으며, 총독부나 朝鮮酒造協會, 각 道府郡島, 그 관내 주조단체 등의 주최로 주류품평회를 열었고, 酒造法에 대한 각종의 강습회를 열었다.

## 2. 酒類 生産의 推移

〈表 1〉과 〈그림 1〉을 통해 酒稅令 시행 후 주류생산의 추이를 보자. 그 전과 비교해볼 때 소주, 약주의 생산량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으나 탁주의 생산량은 격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酒稅令에 의해 일정규모 이하의 주류제조가 자가용주 제조로 귀속되고 그 이상의 것이 판매용주로 귀속되었기 때문이다. 주세령이 시행된 1916년에 관해 전체 주류와 판매용 주류의 생산량을 비교해 보면, 약주와 소주의 경우 양자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탁주의 경우 차이가 커서 後者が 前者의 약 1/3에 불과하다. 즉 약주와 소주는 그 일부만이 자가용주로 귀속되었으나 탁주는 2/3 가량이 자가용주로 귀속된 것이다.

自家用酒 제조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하여 20년대말에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表 3〉을 보면, 自家用酒 면허자는 1918년을 피크로 그후 계속 줄어들어(특히 1927~9년), 1920년대 말에는 사실상 없어졌다. 自家用酒 세액은 1916년도에는 판매용 주전주 세액의 1/2 정도였으나 1924년경이 되면 그 1/10 정도로 되었고 1929년경에는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의 소액으로 되었다. 자가용주 제조의 증지는 술을 자가제조하여 소비하는 대신에 구입하여 소비하게 됨을 말한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가정내 주류제조가 없어짐을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음식점이 주류를 자가제조하지 않고 주조장으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게 됨을 의미한다. 즉 주조장과 음식점이 분리된다는 것이다.<sup>26)</sup>

25) 위의 책, pp. 53~84 참고.

26) 물론 “1916년 경 조선주 제조장 12만의 거의 전부가 酒幕이었다”는 지적(『朝鮮酒造史』, p. 51)을 볼 때, 판매용 주류 면허자의 다수도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자가용주 제조가 증지되었다고 해서 곧 주조장과 음식점의 분리가 완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보다는 주조장과 음식점이 분리되기 시작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表 3〉 自家用酒 免許人員과 酒稅額의 推移

(單位:人,圓)

	免 許 人 員					自家用 酒 稅額	販賣朝鮮 酒 稅額
	濁 酒	藥 酒	燒 酎	其 他	合 計		
1916	289356	1476	14425	1531	306788	316925	600282
1918	358112	1811	12632	3202	375757	428930	1184687
1920	303509	1445	12998	2619	320571	599770	2672442
1922	217920	1120	8091	2804	229935	834202	4533289
1924	174882	860	2458	2500	180700	657650	5392490
1926	127529	590	492	3139	131750	489092	7205535
1928	32066	166	34	2599	34865	248036	8965572
1930	11	0	0	0	11	66	7921183
1932	1	0	0	0	1	6	8722545
1933	1	0	0	0	1	6	10166492

資料:『朝鮮總督府統計年報』각년판,“財政編”.

註:酒類別 數値는 酒類別 면허인원임.

주류생산량은 1920년대말까지 비교적 느리게 증가해갔다. 소주의 생산량은 1920년경까지 거의 停滯狀態에 있다가 그후 계속 증가하였다. 약주도 그와 마찬가지로 1920년대 초까지 거의 정체상태에 있다가 그후 계속 증가하였다. 반면 탁주생산량은 1920년대 초까지 급증하고는 그후 거의 정체하였다. 이러한 탁주생산의 추이는 그나마 自家用酒 製造의 감소 중지에 힘입은 것으로서, 그를 감안하면 실제 생산-소비는 감소한 셈이 된다.

주류별 생산량이 이처럼 다른 추이를 보임에 따라 생산액의 전체구성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탁주의 비중이 줄고, 소주의 비중이 늘어났다. 生産價額으로 볼 때, 전체중의 각각의 비중은 1916년에 탁주 64%, 소주 28%, 약주 8%였으나, 1929년에는 탁주 58%, 소주 31%, 약주 11%로 되었다. 造石數와 價額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탁주가 쇠퇴하고 소주와 약주가 팽창한 것이다. 이러한 주류별 비중의 변화는 소주와 약주의 強點에 기인했다고 판단된다.<sup>27)</sup> 특히

27) 소주는 약주나 탁주 등에 비해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고 운반 및 취급이 편리하며, 비교적 넓은 지역을 시장으로 할 수 있다. 또 대량생산을 통한 생산원가의 절감이 비교적 용이하다(“朝鮮及京城に於ける燒酎の需給,”『朝鮮經濟雜誌』164, 1929.8, p. 11). 그리고 약주는 탁주에 비해 고급주류로서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그 소비량이 점차로 증가하게 되어 있다.

〈表 4〉 種類別 燒酒生産의 推移

(單位: 石, %)

	在來燒酎(增加率)	新式燒酎(增加率)
1916	87527	2885
1917	115474 ( 31.9)	3513 ( 21.8)
1918	138469 ( 19.9)	6287 ( 79.0)
1919	109809 (-20.7)	7759 ( 23.4)
1920	114539 ( 4.3)	5322 (-31.4)
1921	175978 ( 53.6)	10634 ( 99.8)
1922	157934 (-10.3)	9611 ( -9.6)
1923	173733 ( 10.0)	8125 (-15.5)
1924	184042 ( 5.9)	8713 ( 7.2)
1925	207318 ( 12.6)	20722 ( 137.8)
1926	237124 ( 14.4)	29114 ( 40.5)
1927	247351 ( 4.3)	27571 ( -5.3)
1928	250351 ( 1.2)	43274 ( 57.0)
1929	247371 ( -1.2)	74920 ( 73.1)
1930	218792 (-11.6)	45527 (-39.2)
1931	208374 ( -4.8)	45554 ( 0.1)
1932	240841 ( 15.6)	71399 ( 56.7)
1933	257650 ( 7.0)	124173 ( 73.9)
1934	339162 ( 2.8)	132255 ( 27.7)
1935	372743 ( 9.9)	153505 ( 16.1)
1936	434249 ( 16.5)	187961 ( 22.4)

資料: 1933년도까지는 『朝鮮總督府統計年報』 “財政편”. 1934년도부터는 “燒酎界の此頃”, 『酒』 9-10, 1937.10, p.1.

註: 1934년도의 증가율은 『酒』의 1933년도 수치(각기 330062, 103591)와 비교하여 계산.

소주업은 매우 유망한 것으로 각광받기에 이르렀다.<sup>28)</sup>

한편, 소주 중에서는 재래소주보다는 신식소주의 생산이 더 빨리 증가하였다.<sup>29)</sup> 각각의 생산량을 나타낸 〈表 4〉를 보자. 재래소주 생산량 對 신식소주

28) “근래 소주업의 발흥은 대단한 것으로 역시 그 業의 성적은 일반 사업계를 驚異케 하고 있으므로 새로 本業을 계획하는 者가 많은 것도 무리한 일이 아니요”(『朝鮮서 성 공할 것은 燒酎의 釀造,』 『朝鮮釀造協會雜誌』 2-1, 1927.1, p.90), “근래 조선주조 업, 특히 조선소주의 양조를 기획하는 者 頻出”하였다(『燒酎의 釀造에 관하여,』 『朝鮮釀造協會雜誌』 2-6, 1927, p. 69).

29) 新式燒酎란 연속식 증류기로 제조된 소주를 말하는데 酒精式燒酎라고도 부른다. 이 증류기는 除水器를 갖고 있어서 度數가 높은 酒精을 만들 수 있고, 糖蜜과 같은 악 취를 띤 원액으로부터도 無臭의 제품을 만들 수 있으며, 또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 이 증류기로부터 높은 度數의 酒精을 생산한 후 그것을 물로 희석하여 희석식 소주를 제조한다. 이에 관해서는 佐田吉衛, 『朝鮮に於ける酒造業と其の設備』, 1928, pp. 179~184 참고.

생산량의 비율은 1917년에 30 : 1 정도였다가 1929년에는 3 : 1에 가깝게 되었다. 신식소주가 1910년대 말에 처음 등장한 이래 점차 재래식 조선소주를 압박해 간 것이다. 그 결정적 時點은 표에서는 대략 1920년대 중엽으로 나타난다. 그 경과에 관해서는 다음의 기술을 보자.

“1919년 평양 齋藤燒酎工場 및 인천 朝日釀造株式會社가 酒精式 器機取燒酎工場을 건설하고… 燒酎를 제조… 그 품질이 기호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재래 燒酎에 대해 큰 反響이 없었지만, 그후 1924년경 廢糖蜜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기에 이르러 그 가격의 저렴함과 수년래의 경험에 의한 품질향상에 의해, 특히 재래식燒酎를 섞은 것을 매출하면서부터는 燒酎界에 大恐慌을 가져왔다.”<sup>30)</sup>

즉 신식소주는 그 가격의 저렴함과 품질의 개선 덕분에 소주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sup>31)</sup>

이제 주세령 시행 후 1920년대말까지의 주류생산의 추이를 정리하면, 소주, 약주의 생산은 비교적 느리게나마 증가해갔지만 탁주의 생산은 거의 정체 내지 감소하였으며 대부분 탁주였던 자가용주 제조가 소멸하였다. 그리고 소주 중에서는 일본으로부터 유래한 신식소주가 상대적으로 더 팽창하여 재래소주를 압박해 갔다.

### 3. 酒造業의 近代化

#### 1) 酒類製造方式의 改善

1920년대에는 주류제조방식도 개선되어갔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총독부의 정책에 의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으로부터의 새로운 제조법의 도입 혹은 그로부터의 자극에 의해 촉발되었다고 보인다.

제조방식의 변화는 소주주조업에서 가장 뚜렷하였는데, 이것은 재래소주가 신식소주로부터의 압박에 대응했던 데서 나타난 결과였다. 앞서 본 바처럼 1920년대 중엽 이래 재래소주는 신식소주의 보급에 따라 일대 위기를 맞이하였다. 재래소주 제조자들은 이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1920년대 후반에 생산방법과 설비를 개선하였다. 우선 비용 절감을 위해 누룩 대신 黑麴을 사용

30) 清水武紀, “朝鮮의 酒造業,” p. 21.

31) 재래소주의 가격은 15~17錢, 혹은 20錢 이상이었으나, 신식소주는 酒精 1度當 생산비가 10錢 정도, 그 가격이 11~12錢 정도였다. “酒造場巡り,” 『酒』 11-9, 1939. 9, p. 44.

하기 시작하였다. 누룩은 밀기울로 만들었지만, 黑麴은 만주산 좁쌀로 만들었다. 黑麴은 누룩에 비해 澱粉의 糖化力이 강하고 그 안에 있는 효모의 발효력이 강하여 소주의 製成비율이 높았고, 따라서 그만큼 소주의 생산비를 절감케 해주었다.<sup>32)</sup> 처음에는 누룩에 소량의 黑麴을 섞어 쓰다가 점차 黑麴의 분량을 늘려갔는데, 1927년경부터 黑麴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1930년경부터는 그것만을 사용하게 되었다.<sup>33)</sup> 다음에, 재래식 증류기(銅고리, 土고리) 대신 증기취입식 개량증류기를 설치·사용하기 시작하였다.<sup>34)</sup> 고리로 증류할 때에는 “발효액이 타버릴 우려가 있어 火力의 加減에 주의를 요하고”, “소주 증기의 냉각 불충분으로 … 소주가 가스로 放散하는 양이 극히 많아 缺減비율이 10~20%에 달하는” 결함이 있었다.<sup>35)</sup> 이런 이유로 증기를 불어넣어 증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개량증류기를 도입한 결과 생산능력이 증대되고 생산비가 절감되었음은 물론이다. 결국 종래의 누룩소주가 黑麴燒酎로 대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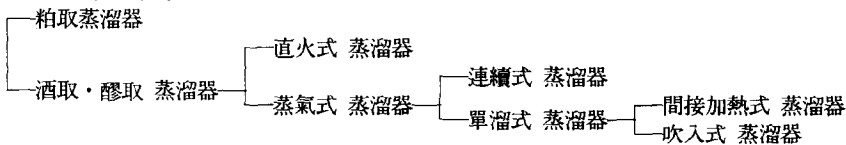
다음의 記事는 이러한 경과를 잘 보여준다.<sup>36)</sup>

“조선의 소주계에 증기기관을 도입하고 蛇管으로써 증류를 시작한 것과 黑麴子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 두 가지 사실만큼 斯界에 심각한 충동을 준 것은 없다. 이제까지 증류기라 한다면, ‘고리’가 유일한 用器였기 때문에, 대량생산이 불가능한 대신 다른 販路를 침투할 필요도 없고 逆으로 침투될 두려움도 없으며 … 그러나 大正 末期경부터 赤樽入의 燒酎(酒精式 燒酎을 말한다-인용자)가 시골 구석구석까지 배달되고 도소매기관을 통하여 성황리에 널리 팔려갔다…재래 燒酎의 판매는 눈에 보일 정도로 감소해갔다… 재래업자에 있어서는 死活의 문

32) “黑麴燒酎製造法講話要領,” 『酒』 7-6, 1935, p. 57. 조재선, “우리나라 발효식품 연구의 어제와 오늘,” 『酒精工業』 8-1, 1978.5, p. 40.

33) “大正 末부터 출현한 黑麴은 1927년경부터 급속히 全鮮에 유행하였다.” 재래소주 중의 黑麴燒酎의 비율은 1930년경 90%를 넘었다. 『朝鮮酒造史』, p. 172 참고.

34) 〈소주증류기의 종류〉



조선 재래의 소주증류기는 直火式 증류기에 속하며, 1920년대 후반에 새로 도입된 증류기는 蒸氣式 증류기 중 吹入式 증류기였다. 보다 자세한 것은 佐田吉衛, 앞의 책, 1928, p. 160~195을 참고.

35) 以上은 위의 책, pp. 170~171 참고.

36) 황해도 재령군 신원리 不老주조장(한국인경영)과 신계군 신계읍 門田주조장(일본인경영)에 관한 설명이다. “酒造場巡り,” 『酒』 11-9, 1939.9, pp. 37~44.

제...업제 未曾有의 변혁..."

"업계에 일어난 大正 말기의 혁명이란... 즉 대량생산을 목표로 하는 공장규모의 개선이 고조되고 실행에 옮겨졌다."

한편, 누룩제조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소주제조에서 원료를 누룩에서 黑麴으로 전환함으로써 누룩보다 黑麴의 사용이 일반화되자, 1927년 경부터 개량누룩이 보급되기 시작하였다.<sup>37)</sup>

## 2) 群小酒造場의 정리와 酒造業者의 성장

1920년대의 주조업에서는 이상의 주류제조방식의 변화와 더불어, 주조장 자체에 획기적 변화가 있었다. 이것은 군소주조장이 정리되고 제조장이 합동하여 대규모 주조장이 생겨난 것을 말한다.

우선, 酒造場數가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表 2>에서 보자. 전체 주조장의 수는 일제하 거의 전시기를 통해 감소해갔다(1938년에 주조장 수는 1916년에 비해 약 1/50로 되었다). 감소속도는 1918~22년의 기간과 1926~30년의 기간(그중에서도 1927~29년)에 빨라서<sup>38)</sup>, 1929년에는 주조장의 감소율이 무려 60%를 넘었다. 탁주 주조장과 약주 주조장이 주로 이 두 기간중에 급감한 반면, 조선소주 주조장은 1916년 이후 1929년까지 해마다(1921년 제외) 급감하여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탁주·약주 주조장은 20년대 후반(특히 1928, 29년)에 급감하였고, 燒酎酒造場은 20년대 중엽(특히 1924~6년)에 급감하였다.

주조장 감소의 계기는 대략 두 가지였다고 보인다. 그 하나는 총독부 당국의 強權的인 합동·집약 조치였다. 함경남도에서는 大正년간에 단천군의 3천여 소주면허자가 11주조장으로, 신흥군의 8백여 소주면허자가 7주조장으로 각기 '集約'되었다.<sup>39)</sup> 총독부 당국의 강권이 행사되지 않고서는 이처럼 주조업자수가 急減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소주제조에서 단적으로 나타난 바와 같은, 주조업자간의 경쟁이었다. 酒精式 소주의 보급으로 경쟁이

37) 개량누룩은 종래의 누룩 제조에 대략 20~30일이 걸렸던 데 비하여 9~13일이 걸릴 뿐이고, 또 "製麴室에 보온설비가 있고 生草 대신에 볏짚을 사용"하기 때문에 4개월 연중 만들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다. 조재선, 앞의 글, p. 40.

38) "1928·29년 경에 이르러, 종래 행해져 온 朝鮮酒 제조장의 합동집약은 일단락을告한다."('朝鮮酒造業40年の歩み', p. 45)

39) 『朝鮮酒造史』, p. 168, 170. 당초의 면허자 數에는 自家用酒 제조면허자도 포함된 듯하다.

격화되자 재래소주업자들은 생산방법을 바꾸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업자만이 살아남고 다수 업자가 몰락하였다.<sup>40)</sup>

요컨대 총독부 당국의 강권의 행사에 의해서, 또한 개개 주조장간의 치열한 경쟁의 압력에 의해서 주조장의 합동이 널리 행해졌다. 그 사례는 朝鮮酒造協會의 조사자료<sup>41)</sup>에서 볼 수 있다. 자료상에서 1934년 현재 한국인이 경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주조장 및 누룩제조장은 261개인데 그중 업자의 합동에 의해 생겨났음이 확인되는 것이 48개이다. 그중 주조장 34개를 제시한 것이 <表 5>이다. 그것들은 대개 面內나 郡內의 업자들이 합동하여 설립한 것이었다.

한편 누룩제조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변화가 일어났다. 총독부는 1927년 경부터 누룩제조업자의 집약정리에 착수하였다.<sup>42)</sup> 누룩제조장의 합동은 주조장의 경우보다 더 철저하였다. 그 과정은 “누룩제조자 및 酒造業者가 相寄하여 누룩제조조합 혹은 누룩제조회사 등을 조직·설립”<sup>43)</sup>하는 것이었다. 예컨대 ① 경기도에는 1928년 1월 1일 현재 176개의 판매누룩이 있었으나 1929년 1월에는 77개로 줄어들었고 “1930년에는 酒造業者로 하여금 組合組織으로 하여 京城, 고양, 인천, 광주, 의정부, 수원, 평택의 7개소에 개량누룩공장으로서 集約”되었다. ② 충남의 경우 1926년에 1,812場이 있었으나 1929년 各郡 1場의 집약방침에 따라 집약이 추진되어 1930년에 조합 8, 회사 4, 개인 1로 완성되었다.<sup>44)</sup> 이렇게 누룩제조장이 ‘집약’되는 것과 더불어 개량누룩이 제조되기 시작했던 것이 주목된다.

주조장의 합동·집약, 주조장간의 경쟁의 결과는 무엇인가? 우선, 영세주조장이 없어지고 대규모 주조장이 생겨났다. <表 6>을 보면, 조선주 제조장

40) “1920년 이래 오늘까지 지속된 燒酎業者는… 황해도 백여개 場의 酒屋내 겨우 다섯 손가락을 꼽을 정도이다. 다른 자들은 모두 大正 末期부터 1930, 31년까지의 長期에 걸쳐 내습한 斯界혁명의 大渦에 휩쓸려 悲慘한 최후를 맞았다.” “酒造場巡□,” 『酒』 11-9, 1939.9, p. 44.

41) 『朝鮮酒造史』, 제11장 “主なる酒造場の概況” 참조. 이 자료는 1934년 현재 朝鮮酒造協會 회원 3,400여명(1934년의 酒類 製造場數는 4,267場)에게 제조장의 상황, 경영자의 약력 등에 관해 문의하여 얻은 약 400여 件의 투고를 게재한 것이다. 본논문에 서는 그중 한국인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261개의 주조장에 관해서 그 연혁과 현황을 조사해 보았다.

42) 그 이유는 소규모 제조업자가 散在하여 그 제조누룩의 품질이 조악하고 가격등락이 끊이지 않아 酒造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주류의 密造를 유발한다는 것이었다. 『朝鮮酒造史』, 제11장, 9면의 朝鮮國酒株式會社의 연혁에 관한 설명 참고.

43) 『朝鮮酒造業40年の歩み』, p. 45.

44) 여타 지역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상은 『朝鮮酒造史』, pp. 153-154을 참조.

〈表 5〉 合同・集約된 酒造場의 事例

酒造場 名(所在地)	設立年	設 立 經 緯
강계양조회사(강계)	1926	군내 21 업자 합동 → 조합 → 회사
경신양조회사(경성)	1927	京城府內업자 합동
대구조선주양조회사	1928	朝・日人유지 합동
경주양조회사	1928	누룩제조조합 → 양조업
김천주조회사	1928	업자 47명 합동
상주주조회사	1928	朝・日人유지 합동
함창주조회사(상주)	1934	함창주조조합 → 회사
목도주조회사(부산)	1934	부산의 5 업자 합동
거창제주회사	1928	거창제주조합 → 회사
경성양조회사	1933	조선주판매상들이 양조장 인수, 회사 조직
예산양조회사	1931	면내 업자 합동, 회사 → 군내 8 업자 합동
영천주조회사	1928	지방유력자 망라
영해주조회사(영덕)	1933	영해주조조합 인수, 모두 지방유력자
진해주조회사	1932	진해읍내 4개 주조장 합동
해주양조장(해주)	1928	1916년 업자 합동하여 조합 → 해산, 새로 설립
해동약주양조장회사	1934	업자 합동
해서약주양조장회사	1935	개인업자 8명 합동
하갈양주소회사(장진)	1930	4 양조장 합동
동일주조회사(명천)	1926	군내 동일양조조합 → 회사
함일주조상회(길주)	1928	4 업자 합동, 익명조합 설립
이천주조장(이천)	1926	개업 5년후 2 주조장 합동
여주양조회사(여주)	1933	업자 합동
울진주조(울진)	1929	업자 합동
평해주조회사	1929	조합 → 회사
금호주조장(영천)	1928	업자 합동하여 조합 → 개인이 인수
영양주조회사(영양)	1926	영양주조조합 사업 계승
군위주조회사(군위)	1929	군위주조조합 계승
의흥주조회사(군위)	1929	동업자 규합, 회사
안의양조회사(함양)	1933	양조조합 조직 → 33년 조합 해산, 회사 설립
신평양조장회사(곡산)	1934	개인경영이 인접업자 2명 규합
삼성양주회사(안악)	1935	3 업자 합동
삼양소주공장(태천)	1921	1930년대초 8 업자 합동
신흥양주소(신흥)	1930	4인 익명조합, 1930년 단독경영화
성천양주회사(성진)	1932	개인경영 → 1925년 8인 조합 → 32년 회사

資料: 『朝鮮酒造史』, 제11장.

수는 1918~29년간에 전체로는 약 7/100로 줄어들었다. 500石 이상 규모의 주조장이 150배로, 100~500石 규모의 주조장은 16배로, 50~100石 규모의 주조장은 1.5배 정도로 늘어난 반면에, 50石 이하 규모의 주조장은 약 1/50 수

〈表 6〉 規模別 朝鮮酒 酒造場 數의 推移

	1918	1920	1922	1924	1926	1927	1928	1929	1930
500石~	5	0	14	53	217	374	751	891	764
100石~	169	306	397	902	1858	2107	2349	2864	2695
50石~	665	2157	2746	3789	3510	3837	2571	1142	991
10石~	27744	56420	46511	43481	33572	22848	10724	1632	1399
~10石	70767	9799	8710	8710	7621	5444	2177	1089	1089
休業	1102	315	157	358	229	272	229	429	615
合 計	100452	68996	58536	57292	47008	34881	18802	8047	7553

資料: “酒類製造免許場數調,” 『朝鮮總督府調査月報』 5-3, 1934. 3, pp.40~41.

註: 신식소주 주조장은 포함되지 않음.

〈表 7〉 1酒造場當 生産量

(單位: 石)

	濁 酒	藥 酒	燒 酎	(朝鮮燒酎)	(新式燒酎)
1916	5.4	8.7	3.2	3.1	56.6
1918	10.1	14.8	7.4	7.3	114.3
1920	20.0	38.4	23.5	22.7	147.8
1922	24.6	50.8	38.4	36.6	200.2
1924	28.0	84.6	60.2	58.0	311.2
1926	36.5	163.4	201.2	182.0	1455.7
1928	92.8	543.9	452.5	397.4	2163.7
1930	280.6	684.9	521.4	445.6	2529.3

註: 〈表 1〉, 〈表 2〉, 〈表 4〉로부터 作成.

준으로 줄어들었다.<sup>45)</sup> 〈表 7〉을 보면, 1주조장 당 평균 造石數는 1916년에 비해 1930년에는 100배 정도로 커졌다. 확대율은 조선소주의 경우에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약주, 탁주의 순이었다.

둘째로 酒造業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이 달라지고 지방의 유력자가 酒造業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즉

“1916년도부터 1926년까지의 10년간은 燒酎제조업계에서 일대 혁신기, 소위 賤業酒造로부터 工業酒造로의 전환시대였다… 지방의 유력자도 시대의 波에 편승하여 酒造공업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앞을 다투어 酒造경영으로 달려가는 획기적 변천이 있었다. 이 신진경영자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 기민하게 두텁

45) 『朝鮮總督府統計年報』 상의 주조업 ‘공장’은 1925~28년의 기간에 282개로부터 535개로 증가하였다.

고 따라서 酒造場의 설비제조방법의 개선이 용이해졌다.”<sup>46)</sup>

朝鮮酒造協會 조사자료에 의하면, 1934년 현재의 한국인 경영 주조장 261개 중, 1920년대 集約時에 새로 진출하여 설립되었다고 확인되는 것이 73개였다. 그 경영자의 前歷을 보면, 관리·교사 등이 26, 상업이 30, 정미업 2, 기타업 2, 지방유력자라 표시된 것이 7이었다. 개성의 재래소주제조회사인 開城釀造株式會社는 유력자산가 진출의 단적인 例다. 이 회사는 ‘개성의 儒家의 명문 孔氏一家(孔聖學-孔鎮恒)가 1925년 개업한 회사였다.’<sup>47)</sup> 물론 단순히 유행에 따라 주조업에 진출한 경우도 있었지만,<sup>48)</sup> 그러한 경우에서도 당시 주조업 진출이 얼마나 러쉬를 이루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셋째로, 주조장의 경영형태가 個人經營으로부터 組合으로, 그리고 나아가 會社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이 경영형태의 변화는 집약시 개인업자들이 합동하여 조합을 설립한 데서 시작되었다. 그 조합은 이후 개인경영으로 변모하거나 아니면 회사조직으로 개편되어갔다. 회사조직으로의 개편이 매우 활발하였음은 양조업부문에서의 한국인 회사자본이 1920년대 후반에 전업종 중에서 단연 최고의 증가세를 보인 데<sup>49)</sup>서 단적으로 나타났다. 물론 경영형태가 이처럼 개편되고 있었지만, 새로운 경영형태가 아직 안정적 기반을 갖추지는 못했고, 또 그러한 변화가 一律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다.<sup>50)</sup> 주식회사眞露가 1924년에 3인 동업으로 출발하였다가 경영부진으로 곧 해산되고 1928년에 2인 동업으로 재창업되었으나 이듬해에 단독경영으로 재출발했던 것<sup>51)</sup>이 그 한 사례라고 하

46) “北鮮の酒造業を語る, 『酒』 11-1, 1939.1, p. 13.

47) 『朝鮮酒造業40年の歩み』, p. 162.

48) “前에 소규모로 양조하던 者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보고 듣는 대로 흉내를 내서, 一廉의 양조가가 된 무리들이 發起나 하면 바로 합동성립하여... 사업에 착수하였더라도 金錢만 出資했을 뿐이지 하등 기술적이나 경제적 方面에는 白紙인 者뿐이고...” “危機を孕む朝鮮燒酎界と其の對策,” 『朝鮮酒造協會雜誌』 2-1, 1930.1, pp. 39~40.

49) 여기서 한국인 회사자본이란 한국인이 대표인 회사의 불입자본을 말한다. 1926-29년간 한국인 회사의 불입자본금은 전체적으로 15%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양조업 부문에서는 340%나 증가하였다. 보다 자세한 것은 拙稿, “日帝下 朝鮮人 會社資本의 動向,” 제III절을 참고.

50) “조선인 간에는 아직 회사조직적 영업에 훈련받은 자가 적다... 따라서 회사 조직 또는 다수의 조합조직의 朝鮮酒제조업은 성적이 좋지 못하다. 현재 함남같은 곳은 1923년 大集約 斷行 이래 처음에는 거의 전부 조합이었으나, 현재는 개인경영과 2, 3인의 조합조직인 것이 거의 전부를 占하고, 會社든가 또 다수의 조합조직인 것은 全數의 1/10도 안된다. 그 영업성적도 개인경영의 경우가 우량하다.” “朝鮮酒製造經營方法に就て,” 『朝鮮酒造協會雜誌』 2-1, 1930, p. 34.

51) 『眞露 50년사』, 주식회사眞露, 1974, pp. 92~94.

졌다.

결국 1920년대 酒造業의 변혁과정을 통해 한국인 酒造業者 중의 일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제조업자로, 주조업자본가로 성장했을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다.<sup>52)</sup>

#### IV. 戰時統制 以前 1930年代의 酒造業

이제 1930년대의 주조업은 어떠하였는지를 보자. 먼저 주류생산의 전체적 추이부터 보자.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주류생산은 다른 시기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것은 1930년대 초 일시적으로 감퇴·정체한 뒤 급증하여, 결국 1930~37년간에 소주 생산량은 2.5배로, 탁주는 1.8배로, 약주는 1.6배로 되었다. 이들 주류의 생산이 완만히 증가(보다 엄격하게 말하면 사실상 정체)하였던 1920년대와 비교해보면, 1930년대는 朝鮮酒의 생산이 전례없이 증가한 시기라 할 것이다. 이러한 주류생산의 추이는 1930년대의 景氣의 추이와 일치한다. 1930년대 초의 주류생산의 감퇴는 이 시기의 農業恐慌에, 그리고 1933년경 이후 그 획기적 증대는 植民地工業化의 초기국면, 식민지 한국경제의 호황에 각각 대응한다.<sup>53)</sup> 한편 소주 중에서도 신식소주가 재래소주보다 더 빠른 증가율을 보였다(<表 4> 참고). 그 생산량은 1930년경 재래소주 생산량의 1/5에도 못미쳤으나 1936년에는 2/5를 넘었다.

그렇다면 1930년대의 주조업체에는 어떤 두드러진 변화가 있었는가? 이를 소주업과 탁·약주업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먼저 소주제조업의 사정을 보자. 1930년대 초의 소주제조업은 전반적인 불황 속에서 生産過剩과 업자간의 치열한 競爭으로 고민하고 있었다. 1920년대 후반에 신식소주와 黑麴소주가 보급되면서 소주의 생산능력이 커져 이미 1920년대 말에 소주시장은 포화상태에

52) 木村은 酒造業에서의 集約化란 1930년대 軍事工業化와 같이 식민지권력의 통제가 식민지의 家內工業, 中小工場의 자유로운 활동을 압박한 케이스이며, 따라서 식민지화의 negative한 측면이라고 본다(木村光彦, “植民地下臺灣・朝鮮의 民族工業,” 1981, p. 28 참조). 그러나 集約化가 強權的 政策이었더라도 그것에 의해 소생산자 내부의 재편성과 분화, 주조업으로의 자산가의 진출, 주조업 자본가계층의 출현 성장이 이루어졌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점에서 木村의 지적은 일면적이다.

53) 일반적으로 주류는 기호품이고 그 소비는 대중의 구매력의 증감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주류소비는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있었다.<sup>54)</sup> 그 결과 업자간의 판매경쟁이 치열해져 소주가격은 인하되고<sup>55)</sup> 판매대금의 회수가 지연되었다. 이것은 주조업의 위기로 이어졌고, 더욱이 1930년 大恐慌의 여파가 식민지 한국에도 미침으로써 이 위기는 한층 심화되었다. 소주생산량은 1920·1930년대 기간 중 유일하게 1931, 32년에 감소하기까지 했다.

이 위기에 처하여, 총독부 당국은 주조업에 대한 생산통제에 나섰다. 1930년 7월의 酒稅令 施行規則의 개정이 그것이다. 총독부는 소주 주조장을 신규 설립하거나 증산하려는 경우에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신식소주업자들은 서로 결속하여 생산제한과 판매통제에 나섬으로써 이 위기에 대처하였다. 그들은 1931년 5월 全鮮新式燒酎聯盟會를 결성하였고 그를 통해 三井物産과 新式燒酎의 일괄판매계약을 맺었다.<sup>56)</sup> 그들은 三井物産의 광범위한 영업망의 이용을 통해서 판로를 확장하고 그에 따라 경영을 안정화시켰다. 특히 1933년경 이후 소주수요가 급증하자 신식소주는 대대적으로 판로를 확장해갔다.

반면 재래소주는 상대적으로 위축되어갔다. 1920년대 말 이후의 소주업계의 위기에 대처하여 재래소주업자들도 상호간의 판매경쟁의 지양과 협동체의 조직 등을 시도한 바<sup>57)</sup> 있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실패로 끝났다. 1933년경부터 재래소주의 생산량도 증가했으나 그것은 신식소주에 미치지 못했다.

193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특히 1937년에) 재래소주업자 가운데 상호간의 합동 등을 통해, 신식소주제조(즉 酒精式 設備의 도입)로 전환하는 자들이 나

54) “昭和3주조년도로부터 4주조년도에 조선내 산업중 찬연함과 두각을 나타낸 것은 소주업계였다. 업자는 굉장한 勢로써 増石했지만, 그 결과 생산과잉으로 되어 4주조년도 末頃부터 불경기의 영향과 함께 燒酎界도 점차 쇠퇴모습을 드러내고…” 『朝鮮釀造業聯合會會報』 7-5, 1932. 7, p. 4.

55) “黑麹燒酎의 생산비는 1度당 11錢5리 내외이나 판매가격은… 대부분 12~12錢5리이다… 생산비와의 차가 겨우 1, 2錢이다.” “西鮮地方 燒酎業視察所感,” pp. 9~10.

56) 聯盟會와 三井物産 간의 주요 계약 내용은 첫째, 聯盟會의 全생산량을 독점적으로 三井物産의 기구내에서 판매하며, 둘째, 三井物産이 聯盟會員에 대하여 용자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57) 1931년 6월에는 재래소주의 공동판매회사(“朝鮮燒酎販賣株式會社”) 창립을 시도하였고, 또 1932년 10월의 全鮮酒造業者大會에서 각도 재래업자, 有志連署로 財務局長에게 재래소주판매통제 실행에 관해 청원하였으며, 1932년 말에는 三井物産회사와 교섭을 하기도 했다. 『朝鮮經濟雜誌』 1931. 7, p. 24 및 “鮮內在來燒酎業의 既往의 實狀並今後繁榮策に就て,” 『酒』 8-2, 1936. 2, pp. 19~20 참조.

타나기 시작하였다.<sup>58)</sup> 평양에서는 1936년에 평양, 중화, 성천, 순천 등의 黑麴燒酎제조 7업자가 합동하여 大同釀造株式會社(불입자본금 28만圓)를 설립하였다(造石高 1만여石). 1937년에는 日本人資本인 부산의 大鮮釀造株式會社の 주도 아래 平壤局 관내 黑麴燒酎業者들(6 회사, 34 개인업자)이 그 제조석수를 모아 平安釀造株式會社(불입자본금 150만圓)를 창립하였다. 또 함흥에서는 황종주酒造場 외 여러 제조업자들이 합동하여 약 1萬石 규모의 東海酒造株式會社(불입자본금 17만5천圓)를 설립하였으며, 또 원산에서는 동업자의 합동에 의해 8천여石 규모의 北鮮酒造株式會社(불입자본금 25만圓)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경성에서는 경성, 인천 일원의 업자들이 합동하여 2만石 규모의 中央酒造株式會社(불입자본금 48만圓)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업자들이 합동한 경우는 아니지만, 1939년에는 開城釀造株式會社가 신식소주제조로 전환하였다.

大同釀造의 役員 7명 중 1명이 한국인이었고, 平安釀造의 役員 14명 중 7명이 한국인이었다. 그리고 東海酒造의 役員 7명중 6명이 한국인이었고, 北鮮酒造의 役員 5명 전원이 한국인이었으며, 中央酒造는 役員 24명 중 18명이 한국인이었다.<sup>59)</sup> 이로 미루어 볼 때, 大同釀造와 平安釀造는 일본인 업자의 주도 하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이 합동한 회사였으며, 東海酒造와 北鮮酒造, 中央酒造는 일부 일본인 업자를 포함하면서도 거의 전적으로 한국인 업자들이 합동하여 설립한 회사였다.

1930년대 후반에 이 회사들이 집중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사실은 재래소주의 신식소주로의 전환이 소주업계에 있어 당시 하나의 시대적 추세였음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변화는 어떤 사정에서 초래된 것일까? 그것은 1930년대 전반의 신식소주의 약진으로부터 자극받은 것으로 보인다.<sup>60)</sup> 따라서 1930년대 후반의 이러한 재래소주 주조업의 변동으로부터, 변화된 업계환경에 대하여 재래소주업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해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sup>61)</sup>

58) “燒酎界の此頃,” 『酒』 9-10, 1937, 10, pp. 3~4 및 『殖銀 調査輯錄』 1937년 4월호, pp. 56~57, 1938년 1월호, p. 16. 그리고 “朝鮮會社變動表,” 『京城商議經濟月報』, 1937년분,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40년판.

59)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39년판에 의함.

60) “이 알콜식소주의 躍進은 필연적으로 조선재래주조업자에게 생산설비, 제법기술 및 품질의 개선 향상을 촉진하고… 재래식 업자 중 알콜식 소주로 전환하는 자도 날로 증가하였다. 이들 업자는 연맹회에 제조설비의 지도를 요청하고 동시에 가맹을 희망하였다.” 『朝鮮酒造業40年の歩み』, p. 65.

61) 재래식 주조장의 신식설비로의 전환은 의도대로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이것은 中日戰爭 이후 臨時資金調整法에 의해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의 설립이 통제를 받게 되고, 설비조달이 곤란해졌기 때문이다.

이제 탁주와 약주 제조업의 사정을 보자. 이 업계에 있어서도 생산설비의 확대와 교통기관의 발달 등으로 인해 1930년대 초에 역시 주류 판매경쟁이 격화되었다. 이것과 유통기구의 不備로 인하여 주조장은 염가판매와 판매대금 회수불능이라는 곤란을 겪고 있었다.<sup>62)</sup> 주조업자들은 조합을 결성하고 판매협정을 체결하여 지나친 판매경쟁을 막으려 했다.<sup>63)</sup> 그러나 酒造組合이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업자 상호간에 酒價를 협정하더라도 타지역으로부터의 주류의 이입, 개개 업자의 협정위반 등을 막을 수 없었고, 따라서 판매경쟁의 폐해는 시정되지 않았다. 1933년경부터 호경기에 따른 주류 수요의 증대로 이러한 곤란은 다소 완화되었지만, 그것은 결코 해소되지 않았다.<sup>64)</sup>

그 타개책은 업자들간의 가격통제와 판매기구의 개선 등의 판매통제, 그리고 나아가서는 주조장의 합동을 통한 생산의 합리화인데, 이것이 1930년대 중엽부터 실행에 옮겨졌다. 예컨대 京城, 仁川의 두 稅務署 관내 주조업자를 일환으로 하는 판매회사(설립시 불입자본금 5만원)가 1936년 9월 설립되었다. 판매회사 가입제조장 수는 42場, 제1차년도(1936. 9. 1~37. 8. 31)의 판매실적 탁주 41,478石, 약주 4,615石이었다. 그리고 1936년 11월에 청주와 진천, 괴산 등지에서 주조업자들이 합동하여 주조회사를 설립하였다. 즉 淸州酒造(불입자본금 31만圓, 合同場數 18場), 鎭川酒造(불입자본금 10만圓, 合同장수 8場), 槐山酒造(불입자본금 18만7천5백圓, 合同장수 16場)가 그것이다.<sup>65)</sup> 또한 1938년 4월과 5월에는 충주지방의 朝鮮酒 주조업자들이 경영의 합리화를 꾀하

62) “仁川관내에서의 朝鮮酒 …주류거래의 내용을 보면 … 경제계의 不振에 禍를 입어 주류의 판매가 실로 불량하고 판로쟁탈전이 여러 곳에서 행해져, 그 때문에 酒價의 불균형, 酒質의 저하, 亂賣 등 여러 사태를 낳고 판매대금의 회수 역시 매우 곤란하게 되고…” “濁藥酒의販賣施設の改善に就て”(一), 『酒』 7-9, 1935. 9, p. 20.

63) 예컨대 1932년 6월 京城朝鮮酒釀造組合의 30여 조합원은 酒價最低價格을 설정하고 현금거래만을 하기로 협정을 맺은 바 있다. 『朝鮮釀造業聯合會會報』 7-1, 1932. 1.

64) “濁・藥酒 方面에서는 … 濁酒의 年産 150만석, 藥酒의 年産 12만석이라는 발전을 보여 豪勢이지만, 판매가격은 의외로 반대로 低下하였다.” (“燒酒의統制と酒造組合の強力化に就て,” 『酒』 7-5, 1935. 5, pp. 2~3)

“[1930년대 중반 경] 濁酒 1斗 1圓40錢, 藥酒 1斗 3圓50錢의 廉賣가 각지에서 행해진 결과, 외상금 누적과 대상총액의 20~35%에 상당하는 결손을 낳았다… 淸州세무서 관내에서의 酒造業은 近時 交通기관의 정비발달에 수반하여 酒類의 판매 경쟁이 점차 표면화하고 그에 더하여 管外로부터의 移入酒가 많아져 酒價 濁酒 1斗 1圓 30錢 내외로 업계는 한층 혼란상태에 빠졌다… 관내업자의 대부분은 겨우 영업을 계속하는 데 그치는 실정이다.” “京城局管内に於ける酒造界軌近の發展に就て,” 『酒』 10-1, 1938. 1, p. 14.

65) 이상은 “京城局管内に於ける酒造界軌近の發展に就て,” pp. 14~15에 의한다.

는 의미에서 합동하여 忠州酒造株式會社(불입자본금 15만圓), 嚴政酒造株式會社(불입자본금 6만6천圓)를 설립하였다.<sup>66)</sup>

그 결과 탁주와 약주 주조장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朝鮮工場名簿』 1938년 판과 1939년판으로부터 忠北地方에 관해 보자. 우선 ‘공장’ 수가 늘어났다. 1936년 현재 충북지방에는 탁주, 약주를 생산하는 한국인 경영의 공장은 2개 밖에 없었으나, 1938년에는 충주주조의 공장 6개, 괴산주조의 공장 8개, 엄정주조의 공장 4개가 새로 나타났다. 이것은 합동으로 주조장들이 ‘工場’ 규모를 갖추게 된 것이라 설명된다. 그런데 소주제조회사와 달리, 한 회사가 여러 곳에 공장을 갖고 있었다. 이것은 탁주나 약주주조장이 합동하는 경우, 해당되는 모든 주조장이 정리되어 하나의 大工場이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몇몇 군 소주조장만이 정리되고 나머지 다수의 주조장은 각지에 존치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제 서로 경쟁하던 주조장들이 한 회사의 分工場으로서 서로 협력하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주조장의 합동은 일종의 販賣카르텔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930년대 후반의 탁주와 약주 제조장들의 합동에 있어서는 업자 상호간 경쟁의 지양과 경영안정화라는 성격이 두드러진다. 즉,

“근래 조선 財界에 朝鮮酒의 大公업화를 꾀하는 일이 유행이다. 이것은 소위 일반 경제기구가 만든 풍조를 따른 결과이다… 종래 중소제조자가 대립하여 행한 판매경쟁에 노력한 결과, 이제는 오히려 大공장을 건설하고 경영의 합리화에 의해 경제적 휴양 안정을 얻고 싶다는 것으로 생각된다.”<sup>67)</sup>

이처럼 소주제조와 탁·약주제조 모두에서 1930년대에도 주조장의 合同, 그에 의한 주조장의 近代化, 주조경영의 合理化가 계속되었다. 즉 신식소주의 확장 및 자신들간의 지나친 경쟁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든 대응이 불가피해지자, 재래소주 제조업자들이 신식소주 제조로의 전환, 경영합리화·안정화를 꾀하였으며 또한 탁주와 약주 제조업자들도 共同販賣會社를 설립하거나 주조장의 합동을 단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조업의 개편에서 한국인 업자들의 能動性을 발견할 수 있다. 1920년대의 주조업 개편이 총독부 당국의 주도 아래 진행되었다면, 1930년대의 주조업 개편은 변화된 업계환경에 대한 업자

66) 『殖銀 調査要錄』 1938.3, p. 52 및 1938.5, p. 56, 1938.6, p. 59.

67) “朝鮮酒造界の色々,” 『酒』 9-7, 1937.7, p. 2.

〈表 8〉 1930年代 酒類生産의 工場 集中

		1930	1932	1934	1936	1938	1939
工場生産 價額(千圓)	燒酒	8960	7933	14558	20445	28947	39103
	濁酒	4239*	3937	5913	11216*	18321*	21985*
	藥酒		1381	1633			
全生産額 中の 比重 (%)	燒酒	78.8	63.7	82.6	81.6	86.3	87.6
	濁酒	19.6*	19.1	24.3	24.7*	32.5*	34.1*
	藥酒		31.7	51.2			

자료: 『朝鮮總督府統計年報』 “工産額統計” 및 “工場統計”

註: 1) 工場은 『朝鮮總督府統計年報』에서의 定義와 같이 常時 5人 以上을 雇傭하거나 5人 以上을 雇傭할 수 있는 設備을 갖춘 것을 말함.

2) \*標示 數値는 濁酒와 藥酒의 數値들을 合計한 것임.

들의 적극적인 대응의 결과였다고 하겠다.

한편 1930년대에도 주조장 수가 감소하고 주조장의 규모가 확대되며, 따라서 ‘工場化’가 진전되었다. 주류의 총생산액에서 공장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表 8>에서 보는 바처럼 거의 계속하여 높아졌다. 소주의 경우, 工場化率(=공장생산액/全生産액×100)은 1930년 78.8%로부터 1934년 82.6%로 높아졌고, 1938년에는 86.3%로 높아졌다. 그리고 탁·약주의 경우, 공장화율은 1930년 19.6%로부터 1936년 24.7%로, 1938년 32.5%로 높아졌다. 그리고 전체 공장 중에서의 한국인 공장의 비중과 전체 양조업회사 중에서의 한국인 회사의 비중도 높아졌다. <表 9>를 보면, 공장 중에서의 한국인 공장의 비중은 1930년대 전반에 60%대에 있었으나 1930년대 후반에는 70%대로 진입하며, 전체 양조업회사 중에서의 한국인 회사의 비중은 1930년대 초에 60%를 약간 넘었지만 1930년대 말에는 65%를 넘었다. 이것을 종합하면, 1930년대에 있어서 소주, 탁주, 약주의 생산부문에서 주조장규모가 확대되어 공장으로 생산이 집중되고 個人經營의 회사화가 진행되었다는 것이 되고, 이 추세는 한국인경영 주조장에서 더 강했다는 것이 된다. 결국 1938년경 戰時統制가 가해지기까지는, 소주, 탁주, 약주 생산부문에서 한국인 주조업은 1920년대의 발전 추세를 이어받으면서 발전해갔다고 할 수 있다.

〈表 9〉 1930年代 酒類業에서의 韓國人の 地位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酒造業 工場數 (增加率 %)	499	557 (11.6)	556 (-0.2)	583 (4.9)	617 (5.8)	629 (1.9)	666 (5.9)	636 (-4.5)	670 5.3	690 3.0
韓國人 工場數* (同 比重 %)	321 (64.3)		381 (68.5)				473 (71.0)		480 (71.6)	
釀造會社數	167	196	227	234	276	325	369	391	449	462
韓國人 會社數 (同 比重 %)	103 (61.7)	130	149	156 (66.6)	168	206	243 (65.8)	269	320	330 (71.4)

資料：『朝鮮總督府統計年報』각년판, \*는『朝鮮工場名簿』, 『京城商議統計年報』.

拙稿, “日帝下 朝鮮人 會社資本의 動向”.

註：1) 主조업 공장수는 탁주, 소주, 약주뿐 아니라 맥주, 청주 등을 포함.

2) 양조회사 數는 주조업과 장유양조업, 누룩제조업을 포함한 것임.

3) 1938년도의 한국인 공장의 數는 조정한 수치임. 平南의 한국인 공장이『朝鮮工場名簿』상에는 2개로 나와 있고『平南 統計年報』상에는 25개로 나와 있는데, 공장수가 1936년도의 42개로부터 1938년에 2개로 급감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平南 統計年報』의 수치를 택하였음.

## V. 맺음말

이상의 논의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제하에서 소주, 탁주, 약주 등을 제조하는 酒造業은 매우 근본적인 변동을 겪었다. 酒造場은 합방을 전후한 무렵에는 단순히 酒類를 자가제조하여 인근 지역을 시장으로 하여 판매(小賣)하는 주조장兼음식점 혹은 兼業的・副業的인 것으로서 그 數가 수십만에 달했으나, 1930년에는 일개 面이나 郡, 나아가서는 道內나 道外지역까지도 시장으로 하는, 보다 규모가 확대된 專業的인 주조장으로 확대・발전하였다. 酒類의 제조설비도 단순한 원시적인 것으로부터 증기기관을 장치한 근대적인 것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기술도 개선되어 주류가 自造되기를 기다리던 放任的 酒造業에서 본래 의미의 酒類製造業으로 변모하였다. 주조장은 하나의 기업으로서 발전해갔다. 한국인경영의 주조장은 이러한 변동의 중심에 있었고 그 변동 속에서 성장해 갔다. 한국인 중의 有力資産家가 주조업으로 진출하였으며, 주조업에서는 초기부터 1930년대 말까지 한국인이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는 日帝當局의 정책이 기본적 가이드라인이 되었다. 비

록 그 정책이 租稅增徴策에서 비롯되기는 했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주조업의 근대화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주조업의 근대화과정에서는 업자간의 경쟁도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경쟁은 한국인 주조업자와 일본인 주조업자 사이에서만 아니라 한국인 주조업자들 사이에서도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한국인 주조업자들은 그러한 경쟁과정에서 몰락하지 않기 위해 近代的 酒造業으로의 변신을 꾀하였고, 그것에 성공한 자도 다수 출현하였다.

以上이 이 글에서 밝힌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글은 사실과약이 미흡한 채로 일제하 주조업의 이미지를 그리려 했다는 데서 기본적인 약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로, 총독부나 朝鮮酒造協會 등의 관변 기술자료에 대한 의존이 커서, 한국의 재래주조업을 대단히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총독부의 주조업 개선정책과 일제시대에 이루어진 주조업의 변화를 지나치게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로 주조업에 있어서는 생산측면뿐 아니라 流通측면이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며 또 1920년대말・30년대전반에 있어서 酒類流通機構의 개선이 주조업 발전을 위한 焦眉의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류의 유통상황에 관해서는 거의 고찰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셋째로는 주류 중 소주 주조업에 관해서는 비교적 상세히 고찰했지만, 濁酒와 藥酒 주조업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는 보다 구체적이고 풍부한 사실의 파악을 통해 극복될 수 있을 것이지만, 아울러 이후의 연구작업에 있어서는 한국인 주조업의 발전, 한국인 주조업자의 성장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무엇인가, 그것은 해방 이후 韓國資本主義의 형성에서 어떤 의의를 갖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도 답해야 할 것이다.